

3. 금산(禁山) 일대의 문화복원(文化復元) 운동²⁸⁾

어찌하여 대수롭지 않게 고기만 낚을 수 있는가/
허허 하늘을 치는 계수나무 노질이 우습구나/
연기 자욱이 깔린 포구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면/
낚시터엔 낚시꾼 그림자조차 알아볼 수 없네/
저 멀리 포구엔 바람이 일어 돛대 그림자가 움직이고/
빛소리 멎은 모래벌판엔 고요히 달이 떠오른다/
강태공(姜太公)은 늙어서도 주(周)나라를 일으켰는데/
나는 지금 책조차 낚을 수 없어 한스럽구나.

28) 『한라일보』(삼각봉), 1992. 11.20 (금), 논설위원.

기시심상지취어 豈是尋常只取漁
 소장계도격공허 笑將桂棹擊空虛
 연파보리팔귀후 烟波甫里入歸後
 물색동강객은초 物色桐江客隱初
 장포풍래범영동 長浦風來帆影動
 평사월출우성소 平沙月出雨聲疎
 태공이로흥주실 太公已老興周室
 아조한무리부서 我釣恨無鯉腹書

조남설(曹南高)의 「산포조어(山浦釣漁)」 [영주풍아(瀛洲風雅)] 시다.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로 선비들의 가슴에 새겨졌던 「산포조어」의 조망터로 알려진 망경대(望京臺). 그 망경대 일대가 다시 옛날처럼 가꾸어져 전통문화의 명소로 보존되리라고 한다.

지금 제주(濟州)시 건입(健入)동 금산수원지가 있는 남쪽 언덕은 흔히 ‘공덕동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래 ‘금산(禁山)’으로 불려던 곳이다. 나무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생겨난 이름이다. 북성(北城) 밖에 살았던 건입포(健入浦) 주민들은 밭에 갈 때나 나무하러 갈 때 성문을 드나들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1877년(고종 14) 당시 경민장(警民長)으로 있던 고서홍(高瑞興)이 사재를 털어 이 가파른 언덕에 길을 뚫어 동문(東門) 밖으로 통하게 하였다. 주민들이 그 언덕을 기려 ‘공덕동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전설어린 문루

이 공덕동산(금산) 일대에 망경대(望京臺)를 비롯, 망곡단(望哭壇) 포제단(酺祭壇) ‘복신미륵’ [동자복신(東資福神)] 북성(北城)·공신정(拱辰亭)·김만덕(金萬德)의 객주(客主)집터 등이 있었고 그 기슭으로 ‘금산물’, ‘지장각물’, ‘광대못’, ‘영은정(泳恩亭)²⁹⁾’, ‘죽서루(竹西樓)’ 건입포(健入浦)로 이어지는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었다.

망경대(望京臺)는 금산 북사면 지금 금산수원지가 있는 남쪽 높은 언덕바지에 있었다. 성내 동헌(東軒) 경내에 있던 망경루(望京樓)와는 달리 옛날 유배인이나 선비들이 서울을 그리며 술이나 시로 시름을 달래던 놀이터였다. 이 망경대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김만덕(金萬德)의 ‘객주집터’, ‘복신미륵’ 등이 있었고 남쪽으로 망곡단(望哭壇) 포제단(酺祭壇) 북성(北城) 공신정(拱辰亭) 등이 있었으며 서쪽으로 죽서루(竹西樓) 산지천(山地川) 산지포(山地浦) 등이 있었다.

망곡단(望哭壇)은 국상이 나면 지방 선비들이 모여 곡하며 제를 지내던 제단터였으며 포제단(酺祭壇)은 해마다 정월 첫 정일(丁田)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작·풍어를 빌며 제사지내던 곳이었다. 금산 언덕바지로 제주성(濟州城) 북성곽이 둘러졌으며 산지천(山地川)에는 북수문(北水門)이 있었다. 많은 보화를 싣고 표도했던 유구(琉球)왕자가 재물을 탐낸 목사 때문에 한을 품고 죽어 갔다는 전설어린 죽서루(竹西樓)가 바로 그 문루였다.

이 죽서루는 그 뒤 홍수로 무너져 버리고 그 자리에 홍예교가 가설

29) 신문에는 ‘泳恩亭’이 탈락되어 있다. 필자가 삽입함.

되었으며 대신 북성 안에 공신정(拱辰亭)이 세워졌다. 이 홍예교와 공신정은 일제(日帝) 때까지 남아 있었으나 전자는 1927년 홍수 때 도괴되었으며 후자는 1938년 일제가 신사(神社)를 건설하면서 허물어버렸다.

산지천(山地川) 하구는 일제 때 축항공사가 착수되면서 일부 매립되기 시작하였으나 금산물은 8·15 해방 후까지 남아 여름이면 제주시내의 많은 옥객이 모이던 전통문화의 명소였다. 지금은 이 일대가 모두 매립 복개되어 금산저수지로 변하고 있다.

또 금산 일대의 유적들도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거의 소멸돼 버리고 말았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북신미륵과 제주측후소(濟州測候所)를 중심으로 한 북성(北城) 기층부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밖의 유적들도 대체로 그 유지(遺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운동

이번에 건입(健入)동에 거주하는 유지들이 이 금산 일대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 정화사업을 서둘고 나섰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제주시내에는 동헌지(東軒址)를 비롯하여 오현단(五賢壇) 삼천서당지(三泉書堂址) 영주관지(瀛洲館址) 등 유적이 집중돼 있던 지역들이 여러 곳 있었지만 금산 일대도 그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건입(健入)동 유지들은 망경대(望京臺)가 있던 일대를 정비 정화하여 교육문화자원으로 후대에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팽나무 곰솔 후

박나무 등 제주 수종으로 일대를 조경하고 축대 석탁(石卓) 석의자(石椅子) 등을 시설 사람들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소공원으로 가꿀 계획이다. 또 유적들이 있던 터전에는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옛 문화를 모르는 청소년이나 후대들에게 알리는 교육현장으로 삼을 계획이다.

문화자원으로 계승

그동안 우리는 옛 문화나 유적을 허물고 소멸시키는 데만 거들어왔지 그것을 지키고 복원하는 데는 거의 손을 쓰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참으로 소중한 아까운 많은 문화유적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 가운데는 해방 후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한 마디로 반문화적인 행동이었다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모든 문화의 현장을 보존하여 그것을 긍지로 삼고 문화자원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에서 옛 유적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건입동 유지들이 나서서 벌이고 있는 이 문화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도내 곳곳으로 점화되어 나갔으면 한다. 그리하여 잊혀졌던 제주 문화가 발굴되고 길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빈다.